

# 성장/발전

## Entwicklung

### 1. 어원 및 개념정의

동사 wickeln(휘감다, 휘감다)는 명사 Wickel(고고지독일어와 중고지독일어에서도 wickel이며, '섬유 다발'을 의미했다)에서 유래하며, 마찬가지로 섬유다발을 의미하는 고고지독일어 wich(중고지독일어에서는 wicke)의 축소형이다.

entwickeln은 17세기에는 엉킨 섬유 다발을 풀다는 의미(auseinanderwickeln)였고, 18세기 후반부터 뜻이 추상적으로 전이되어서 '발달하다' 혹은 '성장하다'를 의미하게 된다. 명사형 Entwicklung은 17세기부터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상태가 이전보다 더 높은 상태로, 혹은 긍정적인 상태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인간의 성장이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순수한 육체적 성장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성장이다. 육체적 성장은 시간이 흐름과 더불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정신적인 성장은 시간이 흐른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의 대결이나 주변 인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한다. 이때 반드시 어떠한 일의 성공만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패와 좌절도 또한 정신적 성장의 커다란 동기가 된다. 문학작품에서 주인공이 정신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은 주로 이러한 삶 속에서의 좌절과 실패를 통하는 것이 보통이다.

### 2. 모티프 발달사 (성장소설)

한 인간의 단계적인 성장/발전을 그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이루는가를 묘사한 것이 바로 교양소설(Bildungsroman) 혹은 발전소설(Entwicklungsroman)이다. 교양소설을 성장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인공은 자기가 경험하는 일상적 일들의 현상을 내면적으로 파악하는데, 이는 현상 자체에 보편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험하는 대상이나 일을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된 개념으로 치환하고, 그것이 다시 자기 자신의 정신발달에 어떤 영향을 준다.

성장소설/교양소설은 독일문학에서 시작되었다. 교양/성장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되고 철학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딜타이에 의해서이다. 그에 의하면 교양소설이 탄생한 것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신분제의 틀을 뛰어넘은 자유로운 인간의 존재방식을

탐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 주인공이 집을 떠나서 이곳저곳에 머물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방랑을 하면서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그가 정신적으로 성장해서 어느 정도의, 즉 사회생활을 혼자서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발전소설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다. 묘사 기간은 주인공의 젊은 시절, 보통 20세 초반까지의 몇 년을 다루는 것이 보통이지만, 종종 10년 이상의 기간이 묘사되는 경우도 있다.

발전소설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이는 바로 자신의 내적 심리상태와 이것의 변화과정을 자서전적인 소설로 쓴 말 필립 모리츠이다. 그의 소설 『안톤 라이저』(1756-1793)는 그 자체가 발전소설로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서전적인 성격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독일 발전소설의 시작을 크리스토프 마틴 뷔일란트의 『아가톤』(1766, 개정판 1773, 1794)으로 본다. 그리고 독일 발전소설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1795/1796)인데, 이 작품은 이후의 발전소설의 전형이 된다. 괴테 이후의 발전소설을 살펴보면 노발리스의 『푸른 꽃』(1799), 장파울의 『거인』(1800/1803), 코트프리트 켈러의 『녹색 상의를 입은 하인리히』(1845), 아달베르트 슈티프터의 『늦여름』(1857), 빌헬름 라베의 『배고픈 성직자』(1864), 헤르만 헤세의 『페터 카멘친트』(1904)와 『유리알 유희』(1943) 등이 있다.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1981)등이 대표적인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 3. 모티프 유형

일반적인 발전소설의 주인공이 집을 떠나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면서 도달하게 되는 성장은 총체적인 것이다. 그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해져서 사회의 일원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완성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직업을 위한 지식만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 더 나아가서는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정서적인 여유,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스스로 추론할 수 있는 지적인 성장 등등이 바로 그가 겪는 것들이다. 이런 성장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신분의 상승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을 유형별/단계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취득할 수 있는 수단, 즉 직업을 위한 수공업적, 기계적인 숙련을 이루는 경우이다. 주인공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적성을 찾고, 더 나아가서 이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이 경우에 한 여인을 삶의 반려자로 만나기도 한다.

2) 주인공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진다. 그는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약자를 배려할 수도 있는 여

유로운 마음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한다.

3) 실제의 삶과 관계가 없지만 폭 넓은 삶을 위해 필요한 정서적 성장을 경험한다. 그는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안목을 갖추게 된다.

4) 사물이나 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인식론적인 능력의 성장을 경험한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자연이나 세계의 이치를 받아들여서 이 속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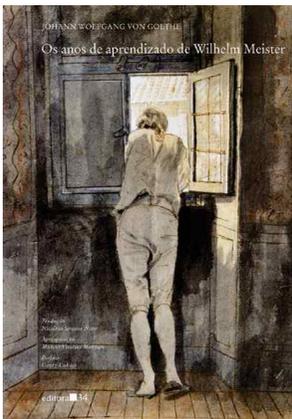
#### 4. 서사구조

	내용
원인  (집을 떠나는 원인)	육체적, 정신적 미숙
	정신적 공허함
	물질적 궁핍
	예술가적 기질
	평범한 일상에 대한 불만
	집안에서의 기대
	집을 떠난다
과정	낮선 지역을 경험
	예술가의 무책임과 나르시시즘 체험
	궁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공허함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
	낮선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
	숙세를 떠난다
	새로운 학문을 배움
삶의 반려자를 만남	
결과	정신적, 육체적 성숙
	새로운 세계관
	신분의 상승
	건실한 가정을 이룸
	지식의 습득
	새로운 세계관
	도덕적 성숙

## 5.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Wilhelm Meisters Lehrjahre』\*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장르	소설
생성년도	1795
등장인물	빌헬름 마이스터: 주인공 마리안네: 여배우, 빌헬름의 첫사랑 라에르테스: 능률한 배우 필리네: 극단의 여자 배우 세를로: 연극단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로타리오: 개혁 귀족 나탈리에: 로타리오의 동생.

### 5.1. 내용 요약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

빌헬름은 부유한 시민계급의 아들로써 상인의 길을 가야 하지만 연극에의 열정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던 중 그는 여배우 마리안네를 사랑하게 되면서 시민계급의 삶을 버리고 그녀와 함께 예술의 세계로 도망가려는 계획까지 세운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실망한 그는 다시 시민계급의 삶 속으로 돌아온다. 이 아픈 기억을 잊기 위해서 그는 상업수련에 열중하고, 이를 흠족하게 생각한 아버지가 그를 출장여행에 다녀오게 한다.

바로 이 사업상의 여행 중 우연히 유랑극단과 관계를 갖게 된다. 여기에서 그는 남성적인 배우 라에르테스, 감성적인 여성 필리네, 그녀를 사모하는 소년 프리드리히, 그리고 이국적인 외모와 신비적 침묵에 휩싸여 있는 소녀 미농 등을

알게 된다. 이들과 함께 어느 백작의 성에 도착한 그는 귀족들의 여흥을 위해서 연극을 공연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궁정 연극의 허상을 체험한다. 그 후 강도를 만나 부상당한 그는 ‘아마존’처럼 생긴 여인의 도움을 받지만, 그가 정신을 다시 차렸을 때는 그녀가 이미 떠난 후였다.

그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세를로를 찾아가 그의 극단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 공연에 참가하면서 햄릿의 역을 연기한다. 이러한 연극적인 몰두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 배우들도 또한 생각했던 것보다는 진지하게 예술에 몰두하지 않

\* 안삼환(역):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민음사, 1996

고, 그저 나르시즘에 빠진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환멸을 느끼면서 그는 다시 예술의 세계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그가 연극 중에 대사“도망쳐라! 젊은이, 도망쳐라”를 듣고 그는 연극세계를 떠나서 로타리오의 성, 즉 ‘탑의 모임’으로 간다. 로타리오의 성에서 그는 개혁귀족인 로타리오와 그의 주변 인물들을 사귀면서 정치적, 현실적 문제에 몰두하면서 지금까지의 ‘연극적인 길’이 일종의 인생 연습이었음을 깨닫는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음속으로 항상 그리던 나탈리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된다.

### 5.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예술적 감수성과 미적 판단의 성장. 도덕적으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의 성장.
- 서사구조: 한 자아가 집을 떠나 여러 가지 경험과 고난을 겪으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된다.

원인	예술적 기질 시민적 삶과 예술적 삶의 갈등 집을 떠난다
과정	예술가와의 사랑 예술가들의 나르시즘 궁중연극의 공허함 사회개혁적인 인사들과의 만남 진보적인 귀족과의 사랑
결과	진정한 사랑을 찾음 건실한 사회의 일원 개혁적인 사상을 갖게 됨 귀족과의 결혼

### 6. 작품 목록

- 뷔일란트 Christoph Martin Wieland: 『아가톤 Agathon』 (1766, 1773, 1794)
- 괴테 Goethe: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Wilhelm Meisters Lehrjahre』 (1795/1796)
- 티크 Ludwig Tieck: 『프란츠 슈테른발트 Franz Sternwald』 (1798)

- 노발리스 Novalis: 『푸른 꽃 Die blaue Blume』 (1799)  
 장 파울 Jean Paul: 『거인 Titan』 (1800/1803)  
 아이헨도르프 Eichendorf: 『예감과 현재 Ahnung und Gegenwart』 (1815)  
 켈러 Gottfried Keller: 『푸른 저고리의 하인리히 Der grüne Heinrich』 (1845)  
 슈티프터 Adalbert Stifter: 『늦여름 Der Nachsommer』 (1857)  
 라베 W. Raabe: 『배고픈 성직자 Der Hungerpastor』 (1864)  
 토마스 만 Thomas Mann: 『마의 산 Der Zauberberg』 (1924)  
 헤세 Hermann Hesse: 『페터 카멘친트 Peter Camenzind』 (1904), 『유리알 유희 Das Glasperlenspiel』 (1943)

## 7. 연계모티프

공동체, 여행, 정체성, 조화, 모험, 방랑, 귀환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 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가출 + 방랑/모험 + 성장
스토리	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한 한 청년이 집을 떠나서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직업적인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하게 된다.